‘지급보증’ 물의 무안군 감사

감사원 “기업도시 관련 대기업 보증 문제있다”

사업 장기화 따른 사유재산 침해 주민 반발도

무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출자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사업기한이 장기간 연기되면서 지나친 재산권 침해로 찬·반논란이 계속되는 등 표류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안군이 중국 측 사업자의 입장만을 염두에 둔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뒤늦게 개발 계획을 수정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18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민 3천900명이 감사원 감사를 청원해 지난주까지 지난 2005년부터 무안군이 추진중인 기업도시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팀은 특히 재정이 취약한 무안군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중미래도시(주)’에 한 대기업이 출자한 40억원을 지급보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세입·세출예산에 지급보증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군의회 의결로 처리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만간 무안기업도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안군은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하는 국내 금융기관이 없어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말 SPC의 법정자본금 규모를 1천538억원에서 430억원으로 감자했다. 무안군도 이에 따라 최초 투자액 140억원 중 101억원을 돌려받았으며, 개발면적도 애초 17.7㎢에서 5㎢로 축소됐다.

그러나 중국 측 사업자가 17.7㎢의 면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사업 완공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반경 2㎞ 이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계속 묶어둘 방침이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무안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감사원 감사와 주민 재산권 침해, 사업 참여 금융기관 부재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무안군 기업도시 건설지원단 전경.

/무안=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무안군은 일단 전남도에 5㎢에 대한 개발계획 신청 및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입장이지만, 토지보상금, 조성비용 등에 사용될 금융자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이 역시 난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무안군이 애초 기업도시 개발기간을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 5㎢의 완공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17.7㎢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군 2·3함대 링스헬기 추락·불시착 등 잇단 사고

조종미숙 이냐 기체결함 이냐

영암 해군 제3함대와 평택 2함대가 비상이 걸렸다. 천안함 침몰사고 이전 한 건도 없었던 링스헬기 추락 및 불시착 사고가 지난 15일과 17일 연이어 발생하면서 조종 미숙 또는 정비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강화된 경계근무태세로 인해 조종사의 피로도가 높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해군은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전·후방의 경계근무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한 상태다. 특히 2함대는 작년 1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대남 전면 대결태세 진입’ 성명을 발표한 직후 경계근무태세 강화 지침에 따라 24시간 긴급 출동태세를 계속 유지해오는 등 근무강도를 높여왔다.

불시착한 링스헬기는 천안함 침몰사고 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원에 전진 배치된 한국형 구축함(KDX-Ⅱ)인 왕건함(4천500t급)에서 레이더에 포착된 미상의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륙, 초계비행에 나섰다.

이후 미상의 물체를 ‘새떼’로 확인한 다음 왕건함으로 복귀 도중 바다에 불시착했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종사가 야밤에 왕건함 갑판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바다에 내려앉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기체 결함 또는 정비 불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청도 해상에 불시착하고 진도 앞바다에 추락한 링스헬기는 각각 1991년, 2000년에 도입된 기종이어서 그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링스헬기는 1993년 8월 경북 성주군 인근에서 추락, 10명이 숨진 사고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진도 해상에 추락한 링스헬기는 평시 초계활동을 위해 이륙, 2시간가량 비행구역을 선회한 뒤 복귀할 예정이었다.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당시 해상의 기상은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군은 사고 조사단을 각각 구성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원인이 드러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천안함 침몰 해역 무인탐사정 투입

민·군 합동조사단 … 사고해상 반경 500m 샅샅이 뒤져

18일 오후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해역에서는 침몰 당시 발생한 파편들을 수거하기 위한 탐색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고가 ‘외부폭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침몰 원인을 밝혀줄 수중 무기의 파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군은 함미의 절단면과 선체의 손상 형태로 미뤄 내부폭발이 아닌 어뢰 등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중 무기에 의해 폭발이 났다면 무기 종류와 공격수단 등을 입증할 단서를 확보해야만 한다.

일각에서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을 감안해 북한을 일차적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증거 없이 섣불리 지목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북한 연관설을 밝힌 적이 없다고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합조단은 현재 80종 183점의 파편을 수거해 분석 중이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파편 대부분이 천안함 선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어뢰나 기뢰 등 무기의 일부로 추정되는 파편은 현재까지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핵심적인 물증을 찾기 위해 사고해상 반경 500m 해역에 무인탐사정 ’해미래호’를 투입해 음파탐지기와 수중카메라로 바다 밑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다. 옹진함 등 소해함 3척은 원래 사고발생 해상을 중심으로 수색 반경을 넓히고 있고 다른 1척은 함미가 떠내려간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바다 밑을 탐색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공무원 노조 전공노 가입 21·22일 총투표

광주시 원천봉쇄 … 충돌 가능성

〈속보〉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가입을 위해 오는 21·22일 총투표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광주시가 이를 원천봉쇄하기로 해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본보 4월14일자 6면〉

18일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6일 질의회신을 통해 총투표 자체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밝혀와 불가피하게 총투표를 원천봉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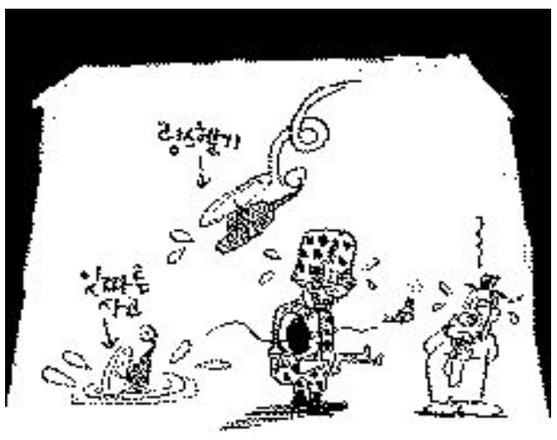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예정대로 총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조와 광주시와의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회신에서 전공노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불법단체로 이에 가입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공무원들이 투표행위에 참여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어이없軍, 답답하軍, 착잡하軍…

행안부 재정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

광주시 인센티브 10억 받는다

전남은 최하위권

광주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는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1/4분기 지방자치단체 재정 조기집행 중간점검에서 광주시가 모두 9천979억원을 집행, 상반기 목표 1조3천486억원의 74.0%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 54.8%보다 19.2% 높은 수치로 광주시 등 24개 우수 자치단체가 모두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한편, 행안부는 전남의 경우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집행률(43.5%)을 기록, 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

시신 ‘고기’ 비유 군의관 직위해제

해군은 천안함 함미에서 승조원 시신을 수습하면서 시신을 ‘고기’로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해당 군의관을 직위해제했다.

해군 공보과장 유영식 대령은 지난 17일 “참모총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문제의 군의관을 어제 날짜로 직위해제했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한 추가적인 적절한 조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그러나 이 군의관의 신상과 논란이 된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군은 또 천안함 홈페이지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실종 장병의 시신 수습 현장에서 모 군의관의 실언으로 인하여 유가족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군은 사과문에서 “해당 군의관은 실언에 대해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하였고, 유가족 또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군의관 개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지난 15일 문제의 군의관이 독도함에서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야, 고기에서 떨어진 국물 다 닦아’라고 했다.

/연합뉴스

사원모집

본사에서는 참신하고 의욕적으로 미래를 창조할수 있는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분 야	구 분	인 원	비 고
편집국 전산직	여	○명	포토샵 가능자
광고영업	남 여	○명 ○명	연령제한 없음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전형방법 및 접수
- 서류전형 및 면접
- 우편접수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2번지 광주일보사 광고마케팅국

서류 제출기한
- 2010년 4월 30일 까지
- 문의전화 : 062)227-9600 010-2035-3932

해 산 공 고 (1차)

당 회사는 2010년 4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의되었습니다. 당 회사는 현재 해산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인바,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들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상법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주식회사 씨엔기술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산학협력관 4층 16호

청산인 이 인 범

공고번호 : 제2010 - 1호

부산물(파지)수거 입찰 공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2010년 5월 이후 발생한 부산물(파지)수거 입찰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함.

-다 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파지수거 연간 총 수량	입찰참가신청서 등록일
압축 및 일반파지	720톤(월60톤)	-일자 : 2010년04월27일 09:00-17:00까지 -장소 : 당 사업소 총무계

◇ 입찰참가신청서 등록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총 수량에 대한 Kg당 단가입찰)
3.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구 분	입찰등록일 (입찰보증금납부)	1차		2차		비고
		입찰	및 개찰	입찰	및 개찰	
일 시	2010. 04. 28. 11 : 00	2010. 04. 28. 11 : 30		2010. 04. 28. 14 : 30		
장 소	당 총무계	당 회의실		당 회의실		

◇ 2차 입찰은 1차 입찰 유찰시에 실시하며, 본 공고를 재입찰 공고로 갈음하고 2차 입찰을 실시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사항
가. 당해 입찰의 목적물의 수거에 필요한 시설, 차량, 집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지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필하여 행정관서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함.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한다. 단,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6.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 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 10이상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되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낙찰을 취소하며, 그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업소에 귀속 함.
7. 입찰무효에 관한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한 입찰.
나. 입찰보증금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마. 기타 따로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8.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통.(사업소 소정의 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다. 법인인감등록증 사본 1통.(개인인 경우 개인인감등록증 사본)
라. 입찰보증금(입찰등록일에 납부)
마. 대리인이 작성할 경우 위임장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바. 사용인감계 1통(사업소 소정의 양식)
9. 기타사항 :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사업소 총무계로 문의.
◇ TEL : (062)944 - 2752 ◇ FAX : (062)944 - 2754

전남농협포장재가공사업소

금산공인중개사

T.881-5866 H.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4면 광로변)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흥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위치: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농공단지 앞
■면적:대지 1400㎡, 도로점유 910㎡
■특징
-주유건축시설 허가 득
-도로점용 허가 득
-마량에서 광주상행선 첫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완공 칠량농공단지앞 유일주유소
■매매가 : 1억 7천만원

창고부지 (서광주역 2순환도로옆)

■창고부지 약 2600㎡(창고 490㎡) 대지 약 950㎡
■매매가:22억(조정가)
■대지,창고 분할 매매가능
■물류,창고부지로 최적지

아리울공인중개사

☎ (063)583-7788
핸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문업소)

새만금-변산-고사포-격포-상록-모항 해수욕장까지의 투자 벨트형성

▶펜션건물(투자,직영,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융자 2억 이상 가능

▶투자용 펜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합.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하고 한가로운 전원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펜션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적기!

무인텔 매각공고

◆대 상
- 위치 광주 북구 유동 105-1외 (LG서비스 센터 뒷)
- 매매가는 상담 후 결정

◆특장점
· 최근에 신축한 시설이며 객실은 20개임
· 도로에 인접해 있어 고객이용이 편리함
· 인테리어는 최고의 품질을 자부함
· 매출 수익보장, 유동인구 많음
· 홈페이지 개설운영, 최첨단 드라이브인

연락처 : 010-5614-1126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아파트론 -無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